채식당마저… 中 도 넘은 불교탄압

사찰이 세운 '아미타채식'
당국으로부터 개명 강요

조우인 객원기자



최근 중국정부의 불교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오쩌둥을 신격화해 본존불로 삼은 사찰도 등장했다. 사진왼쪽은 '마오주석 불타사' 전경, 오른쪽은 불타사 법당 본존불. 가운데 마오쩌둥 양 옆에 주더와 저우 언라이 좌상이 자리한다. 사진출처=비터 윈터

일평균 300명 찾는 채식당
스님 법문 상영했다는 이유
'종교성' 운운하며 규제 강화
마오쩌둥 본존 사찰도 등장

최근 중국정부의 불교규제가 도를 넘어 탄압에 미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중국의 종교탄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터넷 매체 '비터윈터'는 5월 24일, 중국정부가 불교계에서 운영하던 채식당을 탄압했다고 전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중국 동남부 푸젠(福建)성 산밍(三明)시에 소재한 모 사찰이 개업한 비영리 채식당 '아미타채식'이 당국의 규제로 이름을 개명하고, 식당에 비치된 불교서적과 영상물이 압수됐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미타채식은 직원 모두가 불교도다. 채식주의와 불교를 포교한다는 이념 하에 급여를 받지 않는 자원봉사들의 노력으로 운영됐다. 식당 내에서는 불경을 강의하는 영상을 방영하고, 불교서적을 배포했다. 1일 평균 300명 정도의 손님이 찾을 정도로 인기 있는 식당이었다.

그러나 개업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지난해 11월 당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식당에 직접적인 종교성을 띄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의 이름을 개명할 것을 통지했다. 식당은 결국 다른 이름으로 개명했다. 일개 식당에 이러한 규제가 가해진 이유는 식당에서 정토염불로 유명한 징공(淨空) 스님의 법문을 상영했기 때문이라고 비터윈터는 전했다.

징공 스님은 중국출신이나 대만에서 불교를 수학하고, 현재 호주에 정토학원(Pure Land Learning College)을 설립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1년 중국공산당은 징공 스님의 정토학원이 "신자들에게 교리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다시 중국에 역수입 되는 것을 '침입활동'으로 규정, 해당 단체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 왔다.

한편 이 식당을 개업한 사찰 역시 당국의 강제압수조사로 사찰에서 보관 중이던 징공 스님의 서적을 비롯해 대만이나 해외에서 출판된 불서들이 압수됐다고 비터윈터는 전했다.

불교 탄압에 역설적으로 허난(河南)성 루저우(汝州)시에는 공산주의의 지도자들을 신격화한 사찰이 등장했다. '마오주석 불타사(毛主席仏陀寺)'라고 이름 붙은 이 사찰은 법당에 마오쩌둥(毛沢東), 저우언라이(周恩来), 주더(朱德)의 상을 본존으로 모시고 각각 우주천존불조(宇宙天尊仏祖), 중천대불(中天大仏), 관천대불(貫天大仏)로 소개하고 있다.

절의 입구에는 전통적인 사자상이나 인왕상 대신 말을 타고 있는 공산혁명군의 상이 나란히 서있다. 또 마당엔 연화좌대 위에 마우쩌둥의 입상을 세우고 "도교와 불교의 가르침은 마오주석의 교시에 기인한다"는 등의 설명을 좌대에 새겨두었다.

사찰 측은 "최근 당국에서 강행되는 불교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해명했지만, 주변시선은 "비뚤어진 애국심의 발로"라며 곱지 않다. 실제 현지당국의 종교사무국은 해당 사찰을 불교사찰이 아닌 '공산주의 애국교육거점'으로 지정해 공산당원들의 참배를 권유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주민은 "마오주석은 인간으로, 무신론자였다. 문화대혁명 때는 모든 미신을 일소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이가, 지금은 부처가 돼 공양을 받고 있다. 매우 기묘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고대 불교문헌 복원 크라우드펀딩 착수

시드니대학 올해 말까지
1만4000달러 모금 목표



호주 시드니대학교가 1~2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간다리(Gandhari) 불교 문헌〈사진〉의 복원 및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호주 시드니대학교(University of Sydney)가 고대 간다리(Gandhari) 불교 문헌의 복원 및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Global buddhistdoor) 5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시드니대학 마크 알론(Mark Allon) 남아시아불교학과장은 "남아시아 대승불교 발전의 초기 단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올해 말까지 진행되며, 총 1만4000여 달러(한화 약 167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한다. 이후 복원 내용을 대중에게 전파하기 위한 출판도 계획됐다.

시드니대학은 해당 문헌이 대승불교(Mahayana) 발전 과정을 알아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전까지 남아시아 대승불교 역사의 가장 확실한 단서는 5세기 중국어 번역본이 전부였다. 인도판은 이보다 훨씬 후의 것으로, 네팔과 파키스탄 북부에서 산스크리트어 필사본으로만 주로 발견됐다는 게 시드니대학 측 설명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 해당 문헌은 1~2세기 초에 제작됐다"는 것이다.

시드니대학은 "이 문헌이 초기 남아시아 대승불교의 것인지 논란이 많았지만 (연구를 통해) 그것이 확인됐다"며 "남아시아 대승불교의 부흥을 재평가하는데 결정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시드니대학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대학도 해당 문헌의 역사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워싱턴대학은 "이것은 단지 '또 하나 다른' 문헌이 아니다. 그것은 중요성 면에서 여태까지 발견된 문헌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며 "이 문헌에 대한 연구가 종결되면 '혁명'으로 평가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헌 중 일부는 팔리어, 산스크리트어, 중국어와 같은 다른 언어와 연관성도 발견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전에 발견된 불교 문헌과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 세계 각지의 불교학 교수가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워싱턴대학의 리차드 살로몬, 스탠퍼드대학의 폴 해리슨, 옥스퍼드대학의 앤드류 스킬톤을 비롯해 시드니대학의 이안 맥 래브 등 교수가 머리를 맞댄다. 리차드 살로몬 교수의 경우 25년간 간다리 문헌만을 연구, 1996년 영국도서관과 EBMP(Early Buddhist Manuscripts Project)를 공동 구성한 바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부처님 자비 속 행복한 동물들

싱가포르서 베삭 맞아 '반려동물 축원법회' 열려

부처님 탄생을 기념하는 국제 베삭데이를 맞아 반려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5월 19일, 싱가포르의 '더 스타 타임즈'는 동물복지를 위해 봉행된 특별한 법회를 보도했다.

싱가포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개방하는 티베트 불교사원 '텍첸 촬링(Thekchen Choling)'은 베삭데이를 기념해 동물복지를 주제로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 스님들은 반려인과 함께한 동물들의 머리에 일일이 불상을 대어주고, 감로수를 뿌려 이생에서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내고 내생엔 더 좋은 삶을 얻기 바라는 축원을 올렸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불교도들과 일반 시민들을 초청한 이번 법회는 불교계와 동물복지단체 등이 연합해 20여개의 부스를 마련했고, 약 8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부스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는 내용의 전시를 마련하고, 기금 모금과 입양운동을 펼쳤다.

법회에 참석한 콜린 휘(Collin Hu)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0년간 베삭법회에 참석해 축복을 받아왔다. 이번에 반려동물을 위한 축복을 특별히 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동석한 생후 3개월 푸들을 안아 보였다.

사원 측은 "전통적으로 베삭을 기념해 많은 불교도들이 방생을 하지만, 이번 행사는 방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무분별한 방생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우리와 함께하는 동물의 복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의를 전했다.

텍첸 촬링을 이끄는 싱하 린뽀체(Singha Rinpoche)는 이날 법문에서 "단지 맹목적으로 불법을 으려는 것보다 인간과 동물 모두 평등한 생명이라는 가르침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법회에 참석한 반려견을 축복하는 스님. 사진출처=더 스타 타임즈

극우불교단체 수장에 체포 영장

미얀마 경찰, '마바타' 지도자 위라투 폭동선동 혐의

'미얀마의 빈라덴'으로 불렸던 극우 불교단체 수장 위라투〈사진〉에게 결국 '폭동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5월 29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양곤 서부지방법원은 전날 극우불교단체 '마바타(Ma Ba Tha)'의 지도자 위라투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동선동 혐의'라고 외신은 보고 있다.

위라투는 최근 시위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현 정부가 부패했다"며 정부에 날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미얀마에서는 정부에 대한 증오·경멸·불만을 촉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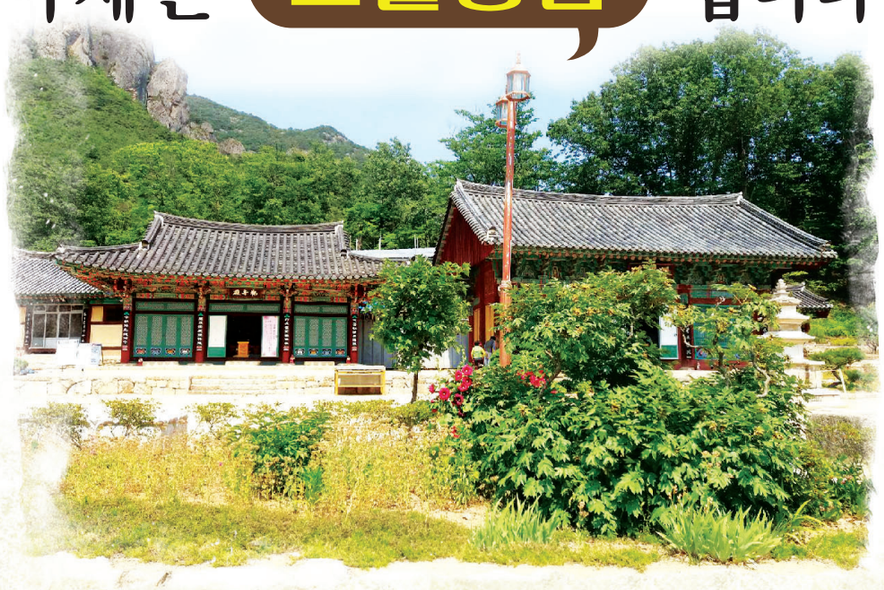


사진출처=AFP

한편 위라투는 그동안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등 미얀마 내 반이슬람 정서를 퍼트려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는 극단적 언행으로 불교원로회의로부터 활동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금지 기간이 풀린 지난해 3월부터 다시 자극적 발언을 재개해 도마에 올랐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HOT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를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